

'잠녀'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대

문화재청 '문화유산 보전' 법률 제정 추진
문화재 범주 확대·보유자 문제 해결 전망

등록 : 2012년 02월 03일 (금) 09:07:37

최종수정 : 2012년 02월 03일 (금) 09:07:3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이어 2월 한 달간 '김치와 김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공개 작업에 들어갔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률적 보호 근거를 담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은 수년전부터 진행됐었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며 더디게 진행됐던 작업은 최근 일본에 전통주 막걸리의 특허권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아이콘인 '아리랑'이 중국에 의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체계적 관리 부족에 대한 지적이 불거지면서 올 정기 국회 입법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법안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인간문화재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재 등재 작업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문화재 보호법 내용 중 일부가 수정 또는 예외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지만 '무형문화재 지정 때 기능 보유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24조로 적잖은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리랑이나 이번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김치·김장문화다. 이들 모두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보편화·일반화하면서 보존·전승 기준을 정하거나 '원형성'을 담보할 대표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정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되는 법률에는 문화재 범주에 없었던 전통 지식, 생활 관습, 민간신앙, 전통 놀이 등이 문화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보유자가 없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주잠녀·잠녀문화도 별도의 보유자 없이 세계 유일의 여성 중심 해양문화로의 가치와 진정성, 독창성(unique) 등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김치·김장문화 등재 작업 역시 관련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치 평가와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의 긍정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